

화순군, 생활불편 민원 신속 해결 ‘최우선’

군수 직속 TF 운영…군민소통방 중심 원스톱 대응 상·하수도 등 3개 분야 중점…현장 중심 협업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수 직속 군민소통방을 중심으로 ‘생활민원 신속처리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TF는 도로 파손, 가로등·보안등 고

장, 쓰레기 방치, 상·하수도 불편 등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려졌다. 최근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여러 부서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복합 민원의 경우 담당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군수 직속 군민소통방을 생활민원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 관계 부서가 공동 대응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민원 신속처리 TF는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도시과장은 부단장을, 도시과 도

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TF는 도로·교통·산림·주민주택, 상·하수도, 환경·청소·위생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건설교통실,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산림과, 관광체육실, 행복민원과, 하수읍, 각 면 등 관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활민원에 공동 대응한다.

또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력을 현장 지원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 생활민원 현장 순찰

과 환경정비, 경미한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생활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생활 현장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

립해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지락 군수는 “군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얼마나 빠르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군수 직속 군민소통방을 중심으로 생활민원 신속처리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강성휘 목포시장, 휴가 반납 폭염 총력 대응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성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장이 최근 폭염 총력 대응을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폭염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건설현장, 관광지 등 주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장

담양, ‘햇빛소득마을’ 창평면 부동마을 선정 711k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창평면 부동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부동마을은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조건부 선정으로, 보완 절차를 마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과 주민 복지 등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자원을 지원한다.

창평면 부동마을은 71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은 사업부지 일부 구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보완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 31일 마감된 2차 공모에는 금성면 죽림마을과 용면 두정마을, 고서면 성산마을, 대덕면 대소산마을 등 4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자립과 마을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1차 선정마을의 보완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2차 공모를 신청한 마을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영광, 보건소 신축 이전 본격화…부지 변경·시설 확대

총 사업비 329억 투입…공공보건의료 거점 구축 고령 어르신·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용 편의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신축 이전에 나선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당초 기존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 시설설계 심의에서 부지 협소와 확장성 부족, 공사 기간 업무 차질 등이 지적됨에 따라 영광읍 남천리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결정했다.

새 부지는 영광읍 중심권에 위치해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규모도 확대된다. 당초 연면적

3886㎡, 총사업비 167억원 규모에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348.64㎡, 총사업비 329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공사비 상승이 아니라 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 보완과 시설 규모 확대, 물가 및 건설단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확대된 시설에는 감염병 대응시설을 비롯해 건강증진, 정신건강·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 등을 반영해 변화하는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보건소 신축사업에 지원되는 국·도비는 정액 지원 방식인 만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중앙부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조감도.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단계별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공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불편도 최소화한다. 공사 구간과 주차구역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차량은 인근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시주차장 확보와 안내체계 개선, 공사 차량 출입 시간 조정 등 교통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유류부지와 임시주차장 추

가 확보, 주변 공공주차장 안내체계 개선, 보행 동선 정비, 공사 차량의 출입 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축협 등 주변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교통·주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조수미,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동참

16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서 특별공연

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대내외 홍보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적인 아티스트 초청 특별 공연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CBS가 주관해 선보이는 문화예술 행사다.

특히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소프라노 조수미

와 50인조 규모의 밀레니엄스포니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적인 크로스오버 곡에 이르기까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향한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불멸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총 900석 규모로 전석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순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이동 중 사고 위험이 큰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이전 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로 노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80%로 1인당 월 최대 1만5530원이며, 7개월 기준 10만871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 및 산재보험

료 부과내역서 등 5종이다.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total.comwel.or.kr)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순천시 경제진흥과(061-749-5760)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배달·대리운전 분야 노동자는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 안전한 여름 보내기 ‘식중독 제로’ 캠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곡성군은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식중독 예방 집중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활동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높은 습도로 인해 세균 증식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군은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음식점과 방문객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군민 및 관광객, 식품 점객업 영업

주를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 화개선 캠페인을 통해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지도, 식재료 보관 온도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단순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 5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 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에 대한 지도와 찾아가는 친절 서비스교육을 병행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위생 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